시험운항 쾌속선 갯벌 좌초

어제 신안 안좌 앞바다서

10일 오후 2시45분께 신안군 안좌면 안좌읍 동북방 500m 해상을 시험운항 중이던 부산선적 161t급 쾌속선 '하이제트 훼리호'가 갯벌에 좌초됐다.

당시 시험운항을 위해 배에 타고 있던 승무원과 회사 직원 11명은 무사했지만, 선박 운항을 계속할 수가 없어 150t급 예인선 '국제 1호'(3천 마력)가 동원됐다. 하지만 예인 중 로프가 끊어진데다, 밀물 때를 놓쳐 작업은 11일 오후 4시께야 재개될 예정이다.

시속 45노트(83㎞)로 달릴 수 있는 이 쾌속선(예상 여객정원 210명)은 목포항을 이날 오후 1시50분께 출발했었다.

해경과 목포해양수산청은 사고지점이 정상항로가 아닌 점으로 미뤄 선장의 운항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선사 측은 목포~홍도를 운항하기 위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면허를 신청했으나 지난 4월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날 면허 취득의 당위성을 증명하기 위해 시험운항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사 측은 면허기준 미달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으며 해양수산청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목포항에서 흑산항까지 운항 중 교각 부근 곡선 항로에서 수심 1m 아래의 갯벌에 배 앞머리가 박힌 것 같다"며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태고종 총무원장 사퇴 촉구

선암사 재적승들 단식 농성

폭력 사태로까지 불거지며 논란을 빚고 있는 순천 태고총림(太古叢林) 선암사 재적승(在籍僧)들이 태고종 총무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선암사 재적승 20여 명은 10일 오후 대웅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비업체 직원을 동원해 신성한 사찰을 폭력으로 짓밟은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태고종 총무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하며 전 주지 금용스님과 함께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선암사 측은 현재 ▲총무원장 즉각 사퇴 ▲도선암 등 선암사 재산 및 공금 반환▲선암사 총림법을 비롯한 운영위법을 파기해 선암사 자주권과 운영권을 인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총무원 측은 선암사 정상화를 위해 선암사 측 2명, 신임 주지 승조 스님 측 2명, 총무원 관계자 3명 등 7명의 협상단 구성을 제안했으나 선암사 측은 금용 스님과 총무원장의 단독 협상을 요구하며 협상을 거부했다.

총무원은 또 9일부터 시작된 예비 승려 교육인 '제30기 합동득도 수계산림'은 예정대로 3주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교도소 사망자, 알고보니 딴 사람

사기죄 노역형 30대, 해경·검찰·교도소 신원확인 안해

목포에서…검문 당시 타인 행세 禍 불러

30대 선원이 자신의 선배가 받아야 할 노역형(勞役刑)을 대신 치르다 지병이 악화돼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과 검찰, 교도소 측은 이 선원이 숨지기 직전에야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등 신원확인 절차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목포교도소에서 노역형을 받다 갑자기 지병이 발병해 지난 8일 전대병원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변한 성모(38·신안군 비금면)씨. 성씨는 지난해 사기혐의로 법원에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자가 됐다.

그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께 선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신안군 지도읍 송도선착장을 들렀다가 목포해경의 불심검문을 받았다. 성씨는 경찰에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려고 평소 외우고 있던 선배 이모(46·신안군 비금면)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며 이씨 행세를 했다.

하지만 이씨 역시 사기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배자였다. 성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신원을 이씨로 속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성씨가 이씨 행세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성씨에게 이씨의 혐의를 적용해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인계했다. 또 벌금 '200만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던 성씨는 목포교도소 노역장에 수감돼 40일간 노역을 하게 됐다.

현행 형법(제70조 등)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루 노역할 때마다 5만원의 벌금을 공제한다.

성씨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면 14일간의 노역형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끝내 이씨로 행세하며 노역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노역 19일째인 지난 7일 오후 2시께 갑자기 지병이 악화, 목포기독병원으로 이송됐다.

교도관들은 이때까지도 성씨가 이씨인 줄 알고 이씨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동생은 "몇 시간 전 형을 만났는데 무슨 소리냐?"며 반문했다. 혼란에 빠진 교도소 측은 급히 성씨의 신분을 알아낸 뒤 검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목포지청은 이날 밤 9시께 '노역장 유치 지휘 집행취소'를 통해 성씨를 석방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증상이 악화된 그는 다음날인 8일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지병인 간경화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과 검찰, 교도소 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목포교도소 측은 "성씨가 입소 당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검찰의 '노역집행지휘서'에 기재돼 있는 인적사항에 따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지검 목포지청 관계자는 "경찰이 성씨를 인계할 때 '이씨'라고 했고, 성씨가 이씨의 본적까지 제대로 대는 바람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휴대용 신원조회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의 일치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성씨가 이씨 신분으로 선원 취업을 하기 위해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행방이 묘연한 사기 등 전과 2범인 이씨의 뒤를 쫓고 있다. 하지만 성씨가 끝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그의 죽음으로 '미스터리'(Mystery)로 남게 됐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60년대 충장로 걸어볼까

'제3회 충장로 축제'를 일주일 앞둔 10일, 광주우체국~'IF U' 구간 200m에 조성된 '1960년대 충장로' 거리를 시민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며 걷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금강산 여행 안전한가요?"

北 核실험 파장 문의 빗발…일부 예약 취소

북한의 핵 실험 강행 후 금강산을 관광하려던 여행객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광주역이 다음달 3일 진행하는 '그리운 금강산 기차여행'(무박 3일, 어른기준 25만2천800원)은 10일 현재 목표인원 380명 중 65.8%인 250명이 신청했다.

하지만 핵 실험 소식이 보도된 후 관광의 안전 및 정상적인 출발 여부를 묻는 전화가 하루 10여 통씩 걸려오고 있다.

금강산 여행을 대행하는 광주지역 관광업체 7곳의 경우, 이달 말까지 예약한 사람이 1천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여행사에는 지난 9일 오후부터 "관광 일정에 차질이 없으냐""금강산에 가도 안전하겠느냐" 등 걱정스런 전화가 하루 수십 통이 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예약 취소에 대한 것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광여행사'의 경우 13일 광주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 상품(2박3일)에 40명이 예약을 마쳤지만, 이중 8명은 10일 오전 취소했다가 오후에 번복하기도 했다.

'금강산여행사'도 단풍을 보려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많게는 1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접수를 했지만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행사 측은 관광 일정에 변동이 없음을 공지하고 관련 약관을 설명하고 있으며, 사태가 나빠져 여행이 중단될 경우 예약 손님들에게 전화 등으로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금강산여행사' 나인욱(32) 대리는 "현재 금강산 관광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쌍나팔

야구장 자리다툼…홈팀 승리에 화해

○…기아 타이거스의 열혈 팬인 60대와 30대가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2차전 관전을 위해 경기장에서 자리다툼을 벌이다 경찰서행.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 9일 오후 7시께 준플레이오프 2차전인 '기아-한화' 경기가 열린 광주시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 VIP석에서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주먹 다짐을 벌인 박모(62·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유모(34·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씨를 10일 폭력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박씨 등은 그러나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기아가 '6대1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 그 자리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화해. /이승배기자 lsb54@